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Family-related Gender Role Attitudes :
Changes from 1991 to 2002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 황은*

Korean Institute of Family Counseling & Education

Researcher : Whaung, Eun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shift in the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regarding familial gender roles between 1991 to 2002.

The results are as follows. (a) There were changes toward the egalitarian direction in familial-related gender role attitudes between 1991 and 2002, in both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b) Yet, despite of these changes toward egalitarianism, Female colleges students exhibited the more egalitarian familial gender role attitude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both in 1991 and 2002. (c) The shift toward more egalitarian attitudes was most pronounced in couples' equal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the sharing of housework, and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force. However, the shift toward egalitarian attitudes was less pronounced in the issues concerning outside home activities of the mothers with infant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 for the future family and family education programs were discussed.

▲주요어(key words) : 가족내 역할(familial role),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s),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근대적인 성역할태도(non-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1. 서론

60-70년대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1980년대는 젠더에 대한 적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즉, 소수의 자녀화, 초혼연령의 상승, 이혼율 및 여성 재혼율의 증가, 여성 가구주나 여성 독신가구의 증가와 같이 여성의 생활양식에서 꾸준한 변화가 있어왔다(통계청, 2000). 또한, 여성의 증가하는 취업률과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해 근로기준법 및 영육아 보육법 제정되었다.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지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가족법 개정으로 모계와 부계의 친족범위가 동일하게 되었으며, 이혼 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신설로 가사노동의 재산형성 기여

가 인정받게 되어 여성의 가족내 지위가 높아지게 되었다(이영규, 2002). 아직 부부관계의 평등성에 대해 구체적 지침이 제시된 바 없지만 여성발전 기본 계획에서 건강한 가족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평등한 부부관계의 정립을 위한 평등 부부상 시상등과 같은 활동이 있었다(여성백서, 1995). 한편으로는 1979년 유엔에서 채택되고 1981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영향을 미쳐 1985년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입법, 사법, 행정적 노력이 수반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정무 제 2 장관실, 1990),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여성부가 설치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 6개 부처에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신설되었다.

* 주 저 자 : 황은 (E-mail : shbyun1@korea.com)

이처럼 여성과 남성의 생활양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이에 상응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지지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역할 태도의 변화는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과거에 비해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목적 있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가 시작된 1991년도와 또 다른 시기인 2002년도라는 두 시기를 비교함으로써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성역할 태도와 가족관계 및 가족형태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윤경자, 1997, Kaufman, 2000), 따라서, 성역할 태도에 대한 자료는 미래의 가족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가족생활교육에의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기초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변화를 탐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논의에서 부수적으로 성역할 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가족 및 가족생활교육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Nelson(1989)과 옥선화와 정민자(1992)에 의하면, 성역할 태도에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태도가 포함될 수 있으며, Glick과 Hilt(2000)에 의하면 성(Gender) 혹은 성역할(Gender-role)과 관련된 개념들이 상당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을 밝힌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꼽히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장상희, 1991) 무엇보다도 취업여성의 자녀 양육문제 및 여성들의 이중 역할 부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유영주(1991)는 '여성취업을 수용하는 빠른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비해 가치관이나 남녀 역할 구분에 대한 사고는 여전히 전통적 태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 과중과 역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남성과 여성을 구성단위로 하는 가족의 존속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선미와 김경신(1996)도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 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구분하는 최초의 기준인 성에 관련된 역할 개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족문제들 특히 여성의 취업에 따른 자녀 양육, 가사노동분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양명숙(1996)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자녀관뿐 아니라 성역할관은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발전에 있어 초석이 되는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는데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이로 인한 자녀양육 및 이중역할 부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제도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성역할 태도에서의 변화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양육 및 이중역할 부담의 해결이 여성의 취업에 대한 남성들의 수용과 가정내 역할에 대한 남성들의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고려할 때, 성역할 태도 중에서도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가 좀 더 직접적인 변화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취업이라는 사회적 변화 및 이로 인한 문제의 해결을 고려할 때, 성역할 태도 중에서도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는 본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미래의 가족과 가족생활 교육에의 시사점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성역할 태도 내용보다 직접적인 근거자료가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태도 중에서도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경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우선, 가정과 직장 역할을 탐색하는 시기는 청년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청년기에 이르러서 직업을 선택하고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며, 책임감있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자신이 미래에 담당할 역할을 수용할 준비를 하게 되며, 자신의 위치, 역할 능력 등을 검토해 보는 탐색을 통하여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나가게 된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호, 1997; 정현숙, 유계숙, 2000 재인용). 그러므로 청년기 이전의 시기는 발달 주기상으로 볼 때, 가정내 역할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시기임으로 이러한 태도를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청년기 이후의 시기 중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를 살펴본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가정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태도를 살펴보는데 있어서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991년도와 2002년도라는 두 시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첫째, 무엇보다도 제한적이거나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취업증가와 함께 가정내 역할에 대한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로의 변화가 중요함을 고려하여 볼 때, 성역할 태도의 경향을 점검하고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로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셋째, 논의를 통해 성역할 태도에 근거한 미래의 결혼과 가족 및 가족생활 교육에의 시사점을 부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미래 가족을 위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시해준다는 면에서 또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성역할 태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

1960년대와 1970년대부터 성(Gender) 및 성 관련 태도(Gender-related attitudes)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여왔지만 (Eckes와 Trautner, 2000), 개념에 있어서의 혼란(Glick과 Hilt, 2000)과 적절한 개념적 원형의 부재로 인한 척도, 검사도구 및 측정도구 그리고 연구결과 해석에 있어서의 혼란이 지적되고 있다(Glick과 Hilt, 2000). 예를 들면,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지향성, 성역할 채택, 성편견, 성역할 고정관념 등과 같이 서로 구별하기 어려운 유사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성 유형화에 관한 연구를 보면, 어떤 연구에서는 자신의 성 유형화된 성격적 특징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성 유형화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적절한 역할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Glick과 Hilt,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성역할 태도를 포함한 성 관련 개념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Ashmore, Del Boca, & Bilder, 1995; Bigler, 1997; Glick과 Hit 재인용)

성과 관련된 용어에 있어서 통일된 용어 및 정의 그리고, 측정도구의 혼란 속에서 Huston(1983)은 처음으로 성에 대한 연구 분석을 위해서 좀 더 원칙적인 개념적 접근방법을 제시한바 있다. Huston은 개념 혹은 신념, 정체감 혹은 자아인식, 선호 혹은 태도 그리고 행동을 포함하는 '구성물영역'과 생물학적 젠더, 행동과 흥미, 인성적-사회적 특성, 스타일과 상징을 포함하는 '내용영역'을 서로 교합하여 성과 관련된 20개의 연구영역을 개념적으로 유형화하였다. Ruble와 Martin(1998)는 Huston이 제시한 '내용영역'에 가치 영역 한 개를 추가하여 Huston Matrix 개정판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곧 이어서 Eckes와 Trautner(2000)는 '구성물영역'과 '내용영역'외에 '분석수준영역'과 '시간영역'이라는 다른 새로운 두 영역을 추가하여 연구영역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영역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방법은 광범위하고 일반론적인 수준에 있는 성에 대한 연구를 서로 구분해주는 하지만 성과 관련된 개념들의 용어 및 이에 대한 정의, 그리고 측정도구들의 혼란함을 여전히 해결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Eckes와 Trautner, 2000).

이상과 같은 지적들은 성과 관련된 개념에 있어서 통일된 용어 및 이에 따르는 정의가 부재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성과 관

련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의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용어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성역할 태도는 Kite(2001)에 의하면, '성 신념 체계(Gender belief system)'의 하위개념이며,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태도 혹은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한편, Ecke 등(2000)에 의하면 성역할 태도는 '성과 관련된 태도(Gender-related attitudes)'의 하위개념으로 남자와 여자의 일을 직장일과 가정일로 구분하는 성별 역할의 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양명숙(1996)은 성역할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장하경과 서병숙(1991)은 이와 동일한 의미에 남성과 여성을 특징지우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포함시키고 성역할 정체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Nelson(1989)에 의하면 성역할 태도에는 리더십에 대한 성역할 태도, 예절에 대한 성역할 태도, 직업적 영역에서의 평등에 대한 성역할 태도, 사회활동에 대한 성역할 태도, 기타 성역할 태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 태도'는 '가정내 역할의 성별분리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정도'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일반적으로, 성역할 태도를 위와 같이 정의하였을 때,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있어서의 이분법적인 양극화된 태도를 가진 경우, 전통적 태도, 경직된 태도, 보수적 태도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 근대적 태도, 융통성 있는 태도, 진보적 태도, 평등적 태도라 한다(이미숙, 2000). 이와 같은 용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경우, 전통적인 태도와 근대적인 태도라는 두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함을 밝힌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와 관련된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육기관 및 대중매체에 있어서 1991년도 대학생과 2002년도 대학생의 차이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지이론과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쉐마 이론은 개인이 처한 환경보다는 개인의 인지적인 선택과 이를 통한 개인의 자발적 과정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고는 있지만, 성역할 태도는 개인의 습득능력과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종합적인 결과임으로(Fagot, Rodgers, Leinbach, 2000).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다.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으로는 가족, 또래, 교육기관, 대중매체가 있지만, 1991년도 대학생과 2002년도 대학생의 환경차를 살펴볼 수 있는 선행연구들은 교육기관과 대중매체로 제한되어 있다. 이 제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대체로 1991년도 대학생과 2002년도 대학생은 상이한 환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차이는 1991년도 대학생보다 2002년도

- 1) 사회적 범주로서의 성이 분석되어질 수 있도록 추가된 것으로 개인적, 대인 관계적, 집단, 문화적 분석 수준이 포함됨
- 2)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발달 수준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포함된 영역임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일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우선,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에서의 차이

1991년도 대학생은 1991년 현재 대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아래 그림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략, 1970년대 말기와 1980년대 초기에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1980년대 중기와 말기까지 중 고등학교를 다녔다. 한편, 2002년도 대학생들은 2002년 현재 대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대략 1980년대 말기와 1990년대 중기까지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1990년대 중기와 말기 그리고 2001년도까지 중고등학교에 다녔다. 이 연도들을 고려하여 교육기관과 관련된 자료들을 대조해봄으로써 1991년도 대학생과 2002년도 대학생이 상이한 환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기관과 관련된 자료들은 교육목표,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교과서 내용별로 정리하고자 한다.

(1) 교육목표

중등학교의 교육목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한국여성개발원, 1983, 1984, 1993, 1999), 70년대는 현모양처라는 규범 밑에 가정이 우선되고, 남자에게 편리한 여성을 위하여 겸양과 순종을 미덕으로 하는 복종적 여성상을 기르는 것에 강조를 두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비해 80, 90년대를 거치는 동안 국가 간의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이 교육목표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음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교육목표의 이러한 경향은 80년대와 90년대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진로교육

진로교육의 경우는 교육목표와는 달리, 80년대와 90년대 간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개발원, 1997). 1980년대 들어와 여학생의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남학생은 기술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여학생은 가정교과서를 통해 재봉, 편물, 자수와

같은 제한된 역할만을 답습하였음이 보고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에서 탈피하면서 여학생의 진로선택을 강화시켰다. 즉, 여학생을 대상으로 지능, 직업, 적성, 흥미 등에 대한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고 여학생 개인별 진로상담 기록카드를 전산화하였으며, 진로교육의 정보화 및 진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로에 대한 개방적인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여자 중학생 진로지도용 및 인문계 실업계 여자 고등학생 진로 지도용 CD 개발 및 보급하고, 교육방송과 에듀넷을 통한 여학생을 위한 다양한 직업세계 소개, 그리고, 여학생 진로지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진로의 날과 진로주간을 설정 운영하여 장래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3) 교과과정 및 교과서 내용

교과 과정 및 교과서 내용의 경우에도 80년대와 90년대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차 교육과정은 82년도에서 88년도에, 5차 교육과정은 89년도에서 95년도에, 6차 교육과정은 95년도에서 20년도에 해당되는 과정이며, 교과서 내용은 성인 지적 관점에서 재검토되어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졌다(한국여성개발원, 1983, 1984, 1993, 1999). 그 결과, 4차에 비해 5차, 5차에 비해 6차로 갈수록 초중등학교 교과서의 삽화와 문장 분석결과, 4차 5차 6차로 갈수록, 여성들의 출현장소가 가정 영역에 출현하는 비율이 낮아졌으며, 역할에 있어서도 가정주부 역할에서 점차 탈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적 역할에도 참여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4차 교육과정이 5차와 6차 교육과정에 비해 가장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 대중매체-창작동화와 잡지광고

1980년대 창작 동화와 1990년대 창작동화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성정아, 1995),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창작동화 나타난

년도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991년도 대학생의 교육시기	초			중						고																	
2002년도 대학생의 교육시기													초			중			고								
교육목표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교과서 내용																											
대중매체(창작 그림책, 잡지광고물)																											

* 색깔이 진해질수록 교육목표, 진로교육, 교과과정 및 교과서 내용, 대중매체에서 좀 더 근대적인 성역할 환경이 주어진 것을 의미함

< 그림 1 > 교육기관 및 대중매체에 있어서 1991년도 대학생과 2002년도 대학생의 차이

주인공의 역할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1990년대 창작 동화에 나타난 여자 남자 주인공이 좀 더 전통적인 역할로부터 탈피된 것으로 묘사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잡지광고에 나타난 여성의 성역할 이미지를 연도별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김희정, 2000), 1970년대³⁾에서 90년대로 올수록 직장여성의 출현 비율이 더 높아졌으며, 여성의 등장장소도 미비한 차이이기는 가정 내부에서 등장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주요역할 비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가 별로 차이가 없이 주부와 아내의 역할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교육기관 및 대중매체에 있어서 1991년도 대학생과 2002년도 대학생간의 차이를 종합하여 보면,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목표를 제외하고 1991년도 대학생과 2002년도 대학생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대체로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교육, 교육과정 및 대중매체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2002년도 대학생 집단이 더 근대적인 성역할 환경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선행연구

관련 선행연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1) 전통적인 태도에서 근대적인 태도로의 변화

Adams(1980)는 사회변화에 따라 부부간의 역할이 전통적인 성에 의한 역할 분화에서 모든 역할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평등주의적 역할 공유로 변할 것이라고 보았다. Toffler(1980)도 미래사회의 역할 공유를 예측하고 있는데 그는 제2의 물결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남성은 생산자 역할, 여성은 소비자 역할로 역할이 분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제 3의 물결이 밀려드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생활양식이 출현하고 가정에서도 남녀 간의 역할 공유가 이루어져 부부관계가 더욱 평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조미환, 임정민, 1997 재인용). 국외 연구에서도 여성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변화에 동반하여, 여성과 남성의 태도는 여성과 남성의 역할 변화를 더 크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Spence & Hahn, 1997; Twenge, 1997a).

한편, Brewster & Padavic(2000)은 Mason과 Lu의 주장(1988)에 기초하여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한다 할지라도 1977년에서 1996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늦춰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물론, 미혼 여성 및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유급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가계소득에 대한 여성의 기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성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과 관련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자체로 인해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에 대해 앞으로도 개인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Brewster & Padavic, 2000). 그러나 집단화된 시설 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녀양육의 질과 이로 인한 자녀발달에 대한 의문, 자녀 양육에 대한 보수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일-가족에 대한 새로운 보수주의적 태도의 발현 그리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남성들의 축소된 기회로 일어난 여성의 유급 노동에 대한 반대적인 태도의 부가 등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근대적인 태도의 변화속도를 느려지게 하거나 혹은 그러한 근대적인 태도를 역행적인 태도로 반전시킬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Brewster & Padavic, 2000). Brewster 와 Padavic(2000)은 또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 분담에 대한 근대적인 태도로의 변화의 기술키가 1975년에서 1990년까지는 가파르지만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완만함을 보여주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근대적인 태도로의 변화가 1990년을 기점으로 미비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세대들이 좀 더 근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더 큰 근대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여성들이 유급노동시장으로 더 큰 유입을 보인다 할지라도 반대적인 방향으로의 여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토하면서, 최근 소위 X세대라고 하는 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보다는 자신들의 할머니와 더 유사한 태도를 보이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성역할 태도는 근대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태도로의 변화의 속도는 미비할 수 있고, 오히려 전통적인 태도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성차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실증적인 연구에서도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더 지체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남성들은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그 변화의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음을 제시하고 있다.

Kane과 Sanchez(1994)에 의하면, 남성에게 있어서는 유급 노동시장으로의 여성의 유입을 수용하는 것은 쉬워도 가정의 역할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또한, 남성들이 보이는 유급 노동시장으로의 여성의 유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수용도 결국은 현재의 노동시장이 성에 의해서 차별화되어 있어서, 여성들이 성분화된 직종과 성분화된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과 여성들이 가정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있어서 아내의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쉬워도 생계담당자로서의

3) 1970년대는 1978년 9월 -1979년 8월사이의 잡지를 의미하고, 1980년대는 1988년 9월 -1989년 8월 잡지를 의미하며, 1990년대는 1998년 9월 -1999년 8월 잡지를 의미함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기 어려우며, 생계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가정의 역할을 떠맡아야 하는 것은 두 사람별이로부터 얻은 잇점을 공유하면서 약간의 행동변화를 보이는 것보다 훨씬 짐스러운 일이다. 즉, Kane과 Sanchez(1994)에 의하면, 남성들은 그들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보'를 보일 뿐인 것이다.

이같이 남성이 보이는 성역할 태도 변화의 한계는 선행연구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평등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고선주(1997), 윤경자(1997), 차성란(1998), 최규련(1995)의 연구에서도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선미, 김경신(199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갈수록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양명숙(1996)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보다는 여자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서, Brewster와 Padavic(2000), Twenge(1997), 그리고, Spence & Hahn(1997)의 연구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특히 극단적인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pence & Hahn, 1997).

3) 변화의 내용 및 특징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들은 극단적인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있다할지라도 어떤 영역에 있어서 여성들은 전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연구자들은 보고하고 있다. Glick과 Fisk(1996)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가족내에서의 여성의 경제적인 이득을 남성들의 경제적인 이득과 연결시키는 여성의 경제적인 의존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남성에 대한 여성의 헌신과 낭만적인 이성애에 대한 문화적 기대는 가정과 직장 역할에서의 불평등한 분담에 대한 여성의 비판의식을 상쇄시키는 작용을 하게하며, 진정한 근대적인 태도로의 변화에 제동을 걸으로써 여성으로 하여금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진정한 변화를 어렵게 만들고 전통적인 태도에 머물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Glick과 Fisk(1996)의 연구에 의하면 성차별에는 적대적인 성차별뿐 아니라 자비로운 성차별이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통해 연구하였을 때, 적대적인 성차별에서는 많이 탈피하였으나, 자비로운 성차별 즉,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하고 남성들은 가계생계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면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성차별이라는 개념을 좀 더 상세히 구분하여 연구함으로써,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볼 때, 전체 성역할 태도 중, 남성으로부터 여

성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영역이나 남성들의 생계담당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영역과 같은 어떤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이러한 자비로운 성차별의 존속은 남녀 간의 낭만적인 이성관계의 결과이자 낭만적인 이성 관계에 대한 문화적 기대가 변화하지 않는 한 유지되기 쉬운 성차별의 부분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볼 수 있다. 교육기관 및 대중매체의 존재하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1991년도 대학생보다 2002년도 대학생은 더 근대적인 환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1년도 대학생보다 2002년도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볼 때, 성역할 태도의 변화방향에 있어 근대적인 태도로의 변화가 지지되고 실증적인 연구에서 규명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가 미비하거나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여성은 극단적인 근대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이 근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특히 생계담당이나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알아보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991년도 대학생과 2002년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1> 전체, 남자대학생, 여자대학생별로 보았을 때, 1991년도 대학생보다 2002년도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가?
- <연구문제 2> 1991년도와 2002년도 모두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별로 보았을 때,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및 특징은 무엇인가?

IV.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자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대학생의 성역할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1991년 현재 남녀대학생과 2002년 현재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1991년도와 2002년도에 각각 설문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대학생원들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 수거하였다. 즉, 1991년 자료는 1991년도에 수집된 자료로 2002년도에 회고 형식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며, 1991년도에 조사하여 10여 년 동안 보관한 자료를 2002년도에 새로이 수집한 자료와 비교한 것임을 밝힌다. 이

연구는 따라서 종단적 연구나 횡단적 연구가 아니며, 대학생이라는 하위 집단을 중심으로 1991년도와 2002년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단순히 비교한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1991년도와 2002년도 본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동일하다. 1991년도 본 조사 시기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2002년도 본 조사 시기는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였다. 1991년도에는 총 230부가 배포되고 214부가 수거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총 180부가 배포되고 159부가 수거되어, 1991년도와 2002년도 수거율은 각각 약 93%와 88 %였다.

1991년도의 경우, 수거된 214부와 2002년도의 경우, 수거된 159부가 그대로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는 1991년도와 2002년도 모두 4년제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1991년도의 경우, 여자 대학생은 126명(58.9%), 남자 대학생은 88명(41.1%), 2002년도의 경우, 여자대학생은 85명(53.5%), 남자 대학생은 74명(46.5%)이었다.

2. 측정도구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Osmond와 Martin(1975)이 사용한 성역할 태도 측정도구 중 일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Osmond등(1975)의 측정도구는 원래 31문항으로 '여성과 남성의 가정역할', '여성과 남성의 직장 역할', '여성과 남성의 성유형화된 행동이나 본성', '기타 성역할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정도를 묻는 4영역으로 분류되어있다. 다양한 성역할 태도를 포함한 이 측정도구 중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여성과 남성의 가정역할'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영역에 포함된 문항 중 1991년 예비조사결과, 동일한 것으로 지적된 2문항을 1문항으로 간소화하고,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요인분석에서도 상이한 결과를 보인 한 문항을 삭제한 후 사용하였다. 또한, 이 문항에 본 연구자가 3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문항 중, 2번, 3번, 4번 문항을 제외한 문항이 Osmond와 Martin의 측정도구에서 나온 문항이다. 총 9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 값이 1이상에서 1요인으로 구분된

이 확인되었다. 신뢰도를 보면, Osmond와 Martin(1975)의 측정도구는 총 31문항으로 .88의 신뢰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9문항의 측정도구에 대한 Cronbach Alpha계수는 1991년에 .82, 2002년에 .81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개의 문항 중 8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을 반영하는 문항이며, 이에 대한 주관적인 지지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즉, 각 문항들에 대해 '아주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그렇지 않다. 아주 안 그렇다'중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각각 1점에서 5점을 부여하였다. 8번 문항은 역코드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더 근대적인 것을 의미한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1991년도와 2002년도 자료를 모두 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Alpha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남자대학생, 여자대학생 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도별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서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집단 별로 각 문항별 T검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1. 전통적인 태도에서 근대적인 태도로의 변화

연구문제1인 '전체, 남자대학생, 여자대학생별로 보았을 때, 1991년도 대학생보다 2002년도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표 1 > 전체, 여자대학생, 남자대학생별, 1991년도 대학생과 2002년도 대학생의 태도 차이

	1991년도	2002년도	평균차 ^a	T ^a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3.43(.62)	3.64(.59)	-.22	-3.38***
여자대학생	3.68(.53)	3.86(.52)	-.18	-2.46**
남자대학생	3.07(.56)	3.39(.57)	-.32	-3.58***
평균차 ^b	.61	.47		
T ^b	8.04***	5.40***		

*P<.05, **P<.01, ***P<.001

^a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평균차 및 T값임

^b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평균차 및 T값임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성역할 태도 점수가 1991년도에 3.43에서 2002년도에 3.65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의 경우, 성역할 태도 점수가 1991년도에 3.69에서 2002년도에 3.86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성역할 태도 점수는 1991년도에 3.07에서 2002년도에 3.39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전체, 남자대학생, 그리고 여자대학생 별로 모두 1991년도 대학생보다 2002년도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2. 성차

연구문제2 인 '1991년도와 2002년도 모두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1991년도와 2002년도를 구분하여, 각각 연도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즉, <표 1>를 참고로 보면, 1991년도의 경우, 성역할 태도 점수가 남자 대학생은 3.07을 여자대학생은 3.68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역할 태도 점수는 남자대학생은 3.39을 여자대학생은 3.86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 역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연도별로 모두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3. 변화의 내용 및 특징

연구문제3인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별로 보았을 때,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 및 특징은 무엇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남자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을 구분하여, 각각의 문항별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2>를 참고로 여자 대학생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총 9문항 중 5문항은 1991년도와 2002년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문항은 1991년도와 2002년도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더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하지 않은 문항부터 보면, 변화하지 않았더라도 매우 근대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과 변화가 지체된 문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4.18에서 4.34로, '남자들은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것에 여성과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4.05에서 4.14로. '가족내에서 생계담당자인 남편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4.01에서 4.14로 전자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한편,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은 직업 또는 사회활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3.83에서 3.85로, '여성은 그들 남편을 통해 성취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3.49에서 3.45로 후자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 표 2 > 여자대학생과 남자대학생별, 변화내용

문항		여자대학생		남자대학생	
		1991	2002	1991	2002
1.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직업 또는 사회활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평균(표준편차)	3.83(.79)	3.85(.82)	3.09(1.09)	3.54(.73)
	T값	-.19		-3.03**	
2.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자가 해야 한다	평균(표준편차)	4.18(.81)	4.34(.80)	3.31(.98)	3.41(.95)
	T값	-1.40		-.65	
3.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남편 의견을 따라야 한다.	평균(표준편차)	3.83(.86)	4.09(.81)	3.22(1.01)	3.65(.85)
	T값	-2.28*		-2.92**	
4. 비록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안에 책임을 져야 한다	평균(표준편차)	3.09(.99)	3.47(1.12)	2.42(.83)	3.08(1.00)
	T값	-2.56*		-4.60***	
5. 여성은 그들 남편을 통해 성취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평균(표준편차)	3.49(.94)	3.45(.97)	2.83(.99)	2.97(.98)
	T값	.34		-.93	
6. 남성들은 요리, 자녀양육과 같은 일에서 더 해방되어야 한다.	평균(표준편차)	3.98(.98)	4.26(.86)	3.22(.88)	3.62(.73)
	T값	-2.16*		-3.06**	
7. 남자들은 그의 아내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	평균(표준편차)	2.66(.87)	3.09(1.05)	2.71(.91)	3.00(1.00)
	T값	-3.27**		-1.89	
8. 남자들은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것에 여성과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역코드 함)	평균(표준편차)	4.05(.81)	4.14(.76)	3.48(1.00)	3.66(.91)
	T값	-3.84		-1.23	
9. 가족내에서 생계담당자인 남편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평균(표준편차)	4.02(.77)	4.02(.91)	3.25(.89)	3.55(.81)
	T값	-.07		-2.19*	
전체	평균(표준편차)	3.68(.53)	3.86(.52)	3.07(.56)	3.39(.57)
	T값	-2.46**		-3.58***	

* $P<.05$, ** $P<.01$, *** $P<.001$

또한, 변화한 문항을 보면, 매우 근대적으로 변화한 문항과 변화하였으나 비교적 보통인 체로 남아 있는 문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3.83에서 4.09로, '남성들은 요리, 자녀양육과 같은 일에서 더 해방되어야 한다.'는 3.98에서 4.56로 전자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한편, '비록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안 살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3.09에서 3.47로, '남자들은 그의 아내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는 2.66에서 3.09로 후자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이를 근거로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하여 보면, 첫째, 1991년도 여자대학생보다 2002년도 여자대학생들은 부부간의 의사결정의 공유와 남편의 가정역할 참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근대적 태도를 보인다(이상의 문항은 모두 4점 이상임). 둘째, 취업모의 자녀 양육 부분에서는 비교적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1991년도에 비해 지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1년도 여자대학생들도 어린자녀가 있음에도 사회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에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2002년도 여자대학생에게도 나타나지만, 2002년도 여자대학생들은 1991년도 3.8점대이었던 것에서 더 근대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아 지체된 특성을 보였다. 셋째, 남편을 통한 성취욕구의 인정은 1991년도 여자 대학생의 경우 3.4점대로 보통정도의 태도를 보였는데 2002년도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도 더 이상 진보되지 않은 지체된 특성을 보였다. 넷째, '아내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안 살림을 책임을 져야 한다.'에 대해서는 1991년도 여자 대학생보다 2002년도 여자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분석 결과 각각 3.47과 3.09로 여전히 보통정도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내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한 문항임에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이다.

<표 2>를 참고로 남자 대학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대학생의 경우, 총 19문항 중 4문항에서는 1991년도와 2002년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5문항에 대해 1991년도와 2002년도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하지 않은 문항부터 보면, 보통에서 변화하지 않은 문항과 낮음에서 변화하지 않은 문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남자가 해야 한다'는 3.31에서 3.41로, '남자들은 자녀와 가정을 돌보는 것에 여성과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3.45에서 3.66로 전자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여성은 그들 남편을 통해 성취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2.83에서 2.97로 후자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변화한 문항을 보면, 보통에서 비교적 높게 변한 문항과 낮음에서 보통으로 변한 문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은 직업 또는 사회활동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3.09에서 3.54로.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3.22에서 3.65로. '남성들은 요리, 자녀양육과 같은 일에서 더 해방되어야 한다'는 3.23에서 3.62로, '가족내에서 생계담당자인 남편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3.25에서 3.55로 전자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비록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안 살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2.42에서 3.08로. '남자들은 그의 아내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는 2.71에서 3.00로 후자에 해당하는 문항이다.

이를 통해 보면, 남자대학생은 여자대학생과 태도에 있어서 뚜렷한 점수차를 보인다 할지라도, 특징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여자대학생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첫째, 1991년도 남자대학생보다 2002년도 남자대학생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시를 제외하고는 부부 의사결정시 공동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면과 남편의 가사역할 참여에 대해서는 더 근대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어린자녀가 있더라도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면에서 더 근대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2002년도 남자대학생들도 남편을 통한 아내들의 성취 욕구에 대한 인정은 여전히 지체된 특성을 보였으며, 아내가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안 살림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991년도 대학생보다 2002년도 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미비한 태도를 보인 문항들이었다.

여기서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변화내용 및 특징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비록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예외적이긴 하였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부부의사결정시 공동결정과 남편의 가사역할 참여에 대해서 매우 근대적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아이가 있더라도 아내가 취업을 계속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아주 근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근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남편을 통한 성취욕구의 인정과, 아내가 수입이 많을 경우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덜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를 근거로 미래의 가족생활 및 가족생활교육에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것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본 연구의 주목적인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문제에 맞춰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성역할 태도는 여자대학생과 남자대학생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두 좀 더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이는 미래에 더욱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할 것이라고 본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 및 연구결과(Adams, 1980; Brewster & Padavic, 2000; Spence & Hahn, 1997; Toffler, 1980; Twenge, 1997)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 한편으로,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대해 Brewster & Padavic(2000)이 논의한 바 있던 역행현상은 보이지 않았다.

둘째, 1991년도의 경우와 2002년도 경우 모두 각각,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이 더 근대적인 태도를 보여, 남자들이 성역할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며 여성들에 비해 지체현상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 및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윤경자, 1997; 최규련, 1995; Kane과 Sanchez, 1994; Spence & Hahn, 1997)를 보였다.

셋째, 변화의 내용 및 특징을 살펴본 결과,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간에 서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록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예외적이긴 하였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부부의사결정시 공동결정과 남편의 가사역할 참여에 대해서 매우 근대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아이가 있더라도 아내가 취업을 계속할 수 있다'에 대해서 아주 근대적이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근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 남편을 통한 성취욕구의 인정과, 아내가 수입이 많을 경우 남편의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아내는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가장 덜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예전보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집안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남편이 가사에 더 협조적일 수 있으며, 어린 자녀가 있더라도 아내가 지속적으로 직장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생계 담당자로서의 주 역할에 아내는 가사 및 양육담당자로서의 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199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하였으나,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간에는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여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이 근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간의 의사결정이나 남녀의 가정 및 직장역할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의 하지만, 남자의 역할을 직장 역할로 하고 여성의 역할을 가정의 역할로 간주하는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지체된 현상을 보인 것은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해 동의하기는 하지만 자녀의 양육 및 탁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 과제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성역할 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족 및 가족생활교육에의 시사점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 모두 성역할 태도에 있어 근대적으로 변화한 것은 성역할 태도와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자녀양육에의 참여 및 자녀 발달, 그리고, 아내의 심리적 결과 및 부부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질 높은 가족생활 및 개인발달을 기대하도록 한다.

Nye(1973)는 가족내의 경직된 역할 구조는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며, 반대로 역할 구조가 경직되지 않으면서도 융통성 있을 때 가족의 응집력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간의 융통성과 역할 공유를 지지하는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는 가족의 응집력이 높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김명자, 1991 재인용). 안선영(1994)은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부산시 유치원 어머니를 대상으로 542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이론적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즉, 성역할 태도에 따른 가족 응집력과 적응력은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집단이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았으며,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인 집단과 전통적인 집단, 중도적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높은 HH가족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족은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근대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차원의 교육이 가족을 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안선영, 1994). 한편, Oppenheimer(1994)는 결혼에서의 특화(Specialization in family)는 가족복지를 위협에 처하게 하고 남편에게 짐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점이 있다고 논의하면서 대신에 좀 더 협력하는 가족(More collaborative family)이 동반자적인 결혼을 더 잘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좀 더 융통성 있는 역할을 맡는 부부들이 가족이 직면하게 되는 파괴적인 요인들에 의해 더 쉽게 적응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가사노동분담의 경우, 남편들의 가사노동 분담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성역할 태도 가설이 제시되고 있을 정도로 성역할 태도는 중요한 변수이다. 실증적인 선행연구들을 보면, 이는 부분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손웅기와 이정아(1999)의 연구의 경우, 서울시 거주하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남편 503부를 분석한 결과,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성역할 태도 가설이 지지되었으나, 박주희(1993)의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한편, 차성란(1998)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의 경우, 남편 자신의 태도보다는 부인의 태도가 근대적일 때, 식사 준비 및 뒷처리, 세탁 및 수선, 자녀 돌보기에서 가사 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있어서는 부인의 성역할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가족생활 주기와 지역(차성란, 1998) 및 부인의 취업여부(조미환, 1996)에 따라서, 그리고 종속변수가 가사노동 참여냐 혹은 자녀 양육 참여냐에 따라(조미환, 1996)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성역할 태도 가설이 제한적으로 지지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할 때 성역할 태도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조건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또한, 성역할 태도로 인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궁극적으로 아내의 심리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Ross, Mirowsky & Huber, 1983; 차성란, 1998; Pina와 Bengston, 1995).

또한, 아버지들의 성역할 태도는 자녀양육 참여와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녀의 수와 연령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를 더 많이 하며, 5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와 자녀와의 접촉은 아동의 사회성 증가, 책임감의 향상, 남아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품행에 문제없음, 여아들의 경우,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밝은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란혜, 2000)

그리고, 윤경자(1997)와 최규련(1995)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들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적일수록 부부의 결혼만족과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 모두가 성역할 태도에 있어 근대적으로 변화한 것은 근대적 성역할 태도와 가족의 적응,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아내의 심리적 결과, 자녀의 발달 그리고 부부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볼 때, 앞으로 긍정적인 가족생활 및 개인발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둘째, 남녀 모두 성역할 태도에 있어 근대적으로 변화한 것은 앞으로의 다양한 가족형태 및 가족역동을 기대하게 한다.

성역할 태도와 결혼형태의 선택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성역할 태도가 결혼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Becker(1991)는 전통적인 역할은 결혼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제시하고 있다. Becker(1991)는 전통적인 노동 분담을 통해 서로 보완함으로써 서비스를 서로 거래하는 배우자들은 결혼 속에서 가장 큰 잇점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덜 특화된 노동 분담을 지향하는 여성과 남성 혹은 성역할이 뒤바뀐 여성과 남성은 결혼으로부터 이득을 덜 누리게 된다. 이러한 여성과 남성들은 상호보완적인 배우자를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 대부분은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한 후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Goldscheider와 Goldscheider(1992)는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은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보다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적은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이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보다 결혼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결혼이라는 제도와는 달리 동거 형태는 전통적인 제도로 간주되지 않으며, 좀 더 현대적인 생활 형태로 간주되고 있는데, Clarkberg, Stolzenberg 와 Waite(1995)는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과 여성이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과 남성보다 동거를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Kaufman의 연구에 의하면(2000), 여성의 경우에는 성역할 태도가 결혼 형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태도를 가질 때, 독신보다는 동거 형태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결혼을 할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들이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보다 더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성들이 경우에는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들이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보다 이혼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Kaufman, 2000)

성역할 태도와 자녀 유무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Becker(1991)는 덜 특화된 노동 분담은 여성들이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Nock(1987)에 의하면, 아이를 갖는 것은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과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에게 서로 상이한 의미로 다가오는 핵심적인 상징적 경험(Core symbolic experience)이다. 즉,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들은 어머니됨을 그들의 삶과 정체성에 핵심으로 간주하는 반면,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아이를 갖을지 결정하며, 어머니됨은 그들의 삶과 정체성의 한 일부분일 뿐이다(Nock, 1987). 실증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일관성있게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들은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여성보다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Affleck 등, 1989; Kaufman, 2000; Morgan & Waite, 1991; Rindfuss 등 1988; White & Kim, 1987). 남성의 경우에도 성역할 태도와 자녀계획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Rindfuss, Morgan 와 Swicegood, 1988)나, 일관성 있지는 않다. 어떤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들이 아이를 더 갖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Morgan & Waite, 1991; Rindfuss 등 1988; White & Kim, 1987). 또한,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들은 성공적인 직업, 결혼 그리고 자녀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들이 자녀를 돌볼 아내를 갖는 것이 부모기를 좀 더 수월하게 넘기게 하고 그들의 남성성을 확고히 하게 한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Morgan & Waite, 1991).반면에 Affleck 등(1989)과 Kaufman(2000)의 연구에서는 근대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들이 아이를 더 갖기를 원했고 실제로 아이를 더 두었음을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성역할 태도와 결혼형태에 대한 연구를 볼 때, 앞으로의 가정은 전통적인 결혼의 형태보다도 다양한 가족 형태 독신가정, 이혼가정, 동거가정 등이 이전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 출산의 경우, 여성의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에 비해 남성들의 경우 일관성 없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두 남녀가 만나서 관계의 역동성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지 확실하지 않지만, 여자대학생의 1991년도 비해 보인 훨씬 더 근대적인 태도는 자발적인 무자녀 가족을 출현이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2세대 가족이 지배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면서 평균 가구원의 수가 1975년에 5.0명이던 것에서 점차 줄어들어 1995년에 3.5명을 나타냈다. 한편 이혼율은 1980년대 2만 3천여 건에 지나지 않고 이혼 비율 또한 5.9%수준이던 것에서 1990년에 4만 5천여 건에 11.1%의 이혼율, 1999년에 11만 8천여 건에 32.5%라는 가파른 이혼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가정 중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3만 8천여 가정,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이 4만 4천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이미 새로운 가족구조의 출현이 분해해졌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화는 핵가족 중심의 가족형태 변화, 여성 취업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당연하고, 이혼 및 별거 등을 통한 비전

통적인 형태의 가족형태의 출현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다양한 가족형태로서의 변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통적인 가족생활 형태를 기초로 한 가족생활프로그램에서 좀 더 영역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개발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체적으로 남자대학생들의 지체 현상 다시 말해서 여자대학생과 남자대학생간에 태도에 있어서의 뚜렷한 차이는 앞으로 부부간의 갈등을 예측케 하며,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성역할 태도에 대한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을 포함한 가족생활 교육이 요구된다.

양명숙(1996)은 남녀 가치관의 불일치는 미래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개인 간에 부딪힐 수 있는 가치관 중에서도 성역할관에서의 두성간의 가치관 차이는 가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남녀 간의 불평등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남녀 평등주의적 사고간의 마찰은 갈등 및 가정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며, 특히 가정에서의 갈등으로 빠질 때에는 이혼을 조장하게 되고 결국 이혼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는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게 된다고 보았다. 그 밖에 다른 국내외연구자들도 부부간의 성역할의 일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다(대한가정학회, 1990; Ross 등, 1983)⁴⁾. 또한, 전통적인 남성들은 성공적인 아내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이것이 결혼관계에 긴장을 유발시키고 이혼으로 치닫게 하는 반면(Gerson, 1993), 남편들의 근대적인 태도는 좀 더 가정지향적인 태도를 갖게 하여 긍정적인 결혼역동성을 갖게 하고(Kaufman, 2000), 결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소시키고 결혼과정에서 유발되는 부부간의 불일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남편들에 비해 불일치로 인한 이혼의 가능성에 덜 직면하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결혼행복도를 나타낸다(Amato와 Booth, 1995; Blair, 1993, Lye, & Biblarz, 1993). 윤경자(1997)와 최규련의 연구(1985)에서도 결혼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아닌 남편의 성역할 태도였다.

이를 볼 때, 남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및 여자들과의 차이는 가족생활에 매우 중요하며, 결혼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간의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역할 태도 및 평

등부부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네째, 전체적으로 남자대학생의 경우에서만 보이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부간의 의사결정 공유 및 남편의 가정역할참여에 대해 매우 근대적인 태도로 변화하였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문항 즉, '여성은 직장을 갖더라도 가족에 책임이 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수입이 많으면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남편을 통해 성취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와 같은 문항에서 나타난 미비한 태도는 예전보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집안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남편이 가사에 더 협조적일 수 있지만, 여전히 남편은 생계수단자로서의 주역할에 아내는 가사 및 양육담당자로서의 주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기대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아동의 양육에 대한 남성들의 견해는 좀 더 근대적으로 변화하여 1991년도에 비해 여성의 손에서 자녀가 양육되어야 한다는 틀에서도 변화하였으나, 여성들은 1991년도에 비해 근대적이지만 지체현상을 보였다. 이는 앞으로도 어린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이 취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지만, 많은 양육 스트레스를 가지고 생활하게 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성의 취업은 고무되고 있으며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자녀 양육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반영해주는 결과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좀 더 질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어린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는 전체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일 : 2003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3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2월 02일

【참 고 문 헌】

- 강란혜(2000). 아버지의 역할과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동향. *대한가정학회*, 38(7), 153-165.
- 고선주(1997). 취업주부의 부모기 전이 후 부모로서의 긴장감, 지배감, 성역할 태도와 결혼적응. *대한가정학회지*, 35(5), 17-32.
- 권혜연(1996).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희경(2000). *잠시광고에 나타난 여성의 성역할 이미지 분석*. 중앙대 박사논문
- 박주희(1993).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성별분리정도*. 연세대 석사논문.

4) 한편, 고선주(1997)의 연구의 경우, 첫 아이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284쌍을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 유사성과 결혼적응 간에는 관계를 연구한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외국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함을 보고한 바 있지만, 소규모의 표집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수가 늘 경우 유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후속연구에서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 석드보라·이기영(1999). 부부의 가사노동 자기 역할 인식과 사회화 저항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71-185.
- 성정아(1995). 창작그림책에 나타난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 *홍익대 석사논문*.
- 옥선화·정민자(1992). 결혼과 가족. 서울: 하우.
-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79-91.
- 양명숙(1996). 예비부모세대의 결혼관과 자녀관 그리고 성역할관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2), 167-181.
- 이미숙(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8(4), 145-161.
- 이영규(2002). 가족법. 대명출판사.
- 이선미·김경신(1996).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역할 태도: 모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1), 49-64.
- 윤경자(1997). 성역할 태도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21-235.
- 장하경, 서병숙(1991). 성역할 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167-179.
- 정부제2장관실(1995). 여성백서. 정부제2장관실.
-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차성란(1998). 서울시와 대전시 거주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시간. *대한가정학회지*, 36(5), 137-150.
-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1.
-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2: 가족복지, 노동부문. 통계청
- 한국여성개발원(1983).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84). 중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성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남녀역할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7). 학교교육의 성역할 재생산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 (1999).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한 제 6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사 편찬위원회(1993). *한국여성사*. 이화여대출판부.
- Affleck, M., Morgan, C. S. & Hayes, M. P.(1989).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attitudes on life expectations of college students. *Youth & Society*, 20, 307-319.
- Amato, P. R. & Booth, A.(1995).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and perceived marital 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58-66.
- Becker, G. 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lair, S. L.(1993). Employment, family, and perceptions of marital quality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Family Issues*, 14, 189-212.
- Brewster, K. L. & Padavic, I.(2000). Change in gender-ideology, 1977-1966: the contribution of intracohort change and population turnov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477-487.
- Charles, M. & Francoois, H.(1992). Gender, culture,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 replication of U.S studies for the case of switzerland.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3(3), 375-387.
- Clarkberg, M., Stolzenberg, R. M. & Waite, L. J.(1995). Attitudes, values, and entrance into cohabitational versus marital unions. *Social Forces*, 74, 609-632.
- Gerson, K.(1993). *No man's land: Men's changing commitments to family and work*. New York: Basic Books.
- Goldschneider, F. K. & Goldschneider, C.(1992). Gender roles, marriage, and residential independence. *Sociological Forum*, 7, 679-696.
- Kaufman, G.(2000). Do gender role attitudes matter? family formation and dissolution among traditional and egalitarian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21(1), 128-144.
- Kane, E. W. & Sanchez, L.(1994). Family status and criticism of gender inequality at home and at work. *Social Forces*, 72(4), 1079-1102.
- Lye, D. N. & Biblarz, T. J.(1993).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family life and gender roles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4, 157-188.
- Morgan, S. P. & Waite, L. J.(1987). Parenthood and the attitudes of young adul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541-547.
- Nock, S. L.(1987). The symbolic meaning of childbearing. *Journal of Family Issues*, 8, 373-393.
- Osmond, M. W. & Martin, P, Y.(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ember, 744-757.
- Pina, Davlene. L. & Vern, L. Bengston(1995).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d the well-being of retirement-aged wives. *The Gerontologist*, 35(3), 308-318.
- Rindfuss, R. R., Morgan, S. P. & Swicegood, G.(1988). *First births in America: changes in the timing of parentho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s, C. E., Mirowsky, J. & Huber, R.(1983).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mar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809-823.